

새로 나온 詩集

칼과 흙

김준태 지음

농민의 삶에 대한 어떤 추상적 개념규정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의 삶의 본질과 본능을 진실하게 그려낸 시집. 연작시인 「밭詩」 52편과 신작시들로 구성된 이 시집에는 분노의 표현에서조차 너그러움과 따스함이 배어나오게 하는 大地의 사랑의 힘이 담겨 있다.

문학과학사 / A5변형 / 134면 / 2000원

통일주의

장정일 지음

풍자와 해학을 통해 주로 해체시를 써왔던 저자가 민족적 의식체계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은 시집을 내놓았다. 특히 「생매장」 「피」 「깃발」 「자유」 등의 시편들은 역시 풍자와 해학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열음사 / A5변형 / 98면 / 2000원

두 하늘 한 하늘

문익환 지음

지난 3월 돌연 평양을 방문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저자의 통일에 관한 시들을 모았다. 대부분이 통일을 주장하는 시들이지만, 「열두 달 아침」에는 세상을 보는 그의 어린애 처럼 맑고 고운 눈, 그리고 사람의 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굳은 믿음이 담겨 있다.

창작과비평사 / A5변형 / 224면 / 2500원

오늘 밤 기러기떼는

김규동 지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노래해왔던 원로시인의 신작시집. 오늘의 분단 상황에 대한 통찰과 통일의 염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인간다운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비인간적 상황 속에 갇혀 있는 벗들과 불의에 의해 고난받는 이 땅의 모든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동광출판사 / A5변형 / 166면 / 2500원

사랑교실

황금찬 지음

기독교적 사랑과 휴머니즘 정신이 가득 담겨 있는 시집. 저자는 시를 통하여 잃어가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고갈되고 있는 인류

의 사랑을 되찾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평화의 꽃을 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상적인 담화 속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한 그의 시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상 / A5변형 / 152면 / 2000원

즉흥환상곡

李文杰 지음

섬세한 이미지구사 위주의 시를 써왔던 저자의 세번째 시집. 당위적인 명령이나 요구, 개념적 판단과 추상적인 주장의 사회적 구속을 놓인 시들과는 달리, 그의 시들은 일상과 자연의 소박한 소재들을 섬세한 미감으로 처리함으로써 특정한 의미의 소통을 거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품이 극히 절제된 언어로 이루어진 짧은 서정시이다.

문학세계사 / A5변형 / 116면 / 2000원

돌의 산책

이희선 지음

여성다운 섬세함과 예리한 시적 감상이 돋보이는 여류시인의 처녀시집. 일상의 생활현장의 평범한 구석구석에도 시적 상념의 눈길을 보내어 초점을 맞추는 예리함과 사려깊음, 생동하는 상상력의 경쾌한 표현술이 시편마다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깊이 파고든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의미를 넓혀가는 데에는 아직 미흡하다.

한누리 / A5변형 / 114면 / 2000원

개울물의 여행

허동인 지음

바닷가의 풍물, 봄과 꽃, 어린이들의 생활 주변, 자연과 동물 등이 어우러져 있는 동시집. 특히 「갈매기와 바다」 「산골짜기엔」 「모래알 친구들」 「꽃 한송이 속에」 등의 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노래하고 있다. 고향을 한송이 나팔꽃으로 느끼고 자신은 그 나팔꽃 속의 꽃물이 되고 싶다는 「고향길」도 맑은 동심을 느끼게 한다.

아동문학연구소 출판부 / A5신 / 140면 / 2500원

내게 새를 가르쳐주시겠어요

최승자 지음

「이時代의 사랑」 「즐거운 日記」 등의 시집을 통해 자기 고백성이 강한 작품들을 보여주었던 시인이 기존의 시들과 신작시들을 묶어

시선집을 펴냈다. 개인적 체험을 직설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의 시는 명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언어능력과 시의 의미를 어조에 담은 리듬감이 돋보인다.

문학과학사 / A5변형 / 160면 / 2500원

맛벌이부부의 꿈

李小柱 지음

가난하고 왜소한 삶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의 희망을 노래한 시집. 「맛벌이부부의 꿈」 연작과 「현해탄」 연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집은 단순한 제재를 가지고서도 단순하지 않은 주제, 일상적 삶을 영위하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지향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귀인사 / A5변형 / 130면 / 2000원

슬픈 반도

이가림 지음

196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氷河期」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등의 시집을 냈던 저자의 세번째 시집. 사회의 기만과 허위와 모순, 그리고 이기주의를 성실한 체험적 관찰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낮은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조용히 사색하게 만든다.

예전사 / A5변형 / 144면 / 2000원

사랑이여 너는 무엇이길래

김성휘 지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시인의 장편서사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고향과 고향 사람,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 생활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 명상들이 함께 담겨 있는데, 솔직하고 성실하며 가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정음문화사 / A5 / 304면 / 3000원

달의 무게

이충이 지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끔 느끼는 서러움을 투명한 서정과 공간적 이미지, 쉬운 언어로 표출하고 있는 시집. 꿈을 상실한 도시와 향방 없이 떠도는 삶, 그리고 번두리에 사는 서민들의 외로움을 노래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나와 사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 B6변형 / 100면 / 1000원

너는 왜 열리지 않느냐

홍영철 지음

82년 첫시집 「작아지는 너에게」를 출간했던 시인의 두번째 시집. 일상적 삶의 여러 풍경이나 삽화에서 시적 소재를 끌어내어, 삶의 공허함 혹은 무의미성을 비판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다방이나 음식점, 술집이나 사무실 혹은 아파트의 내부나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문학과학사 / A5변형 / 104면 / 2000원

숨겨둔 빔장

김상길 지음

현직 목사인 저자의 믿음을 주제로 한 시들을 모았다. 그의 시는 성서를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성서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통해 성서의 의미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삶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만 의미있는 삶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믿음의 시선」 시리즈 26번째 작품집. 종로서적 / A5변형 / 120면 / 2000원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김희수 지음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조명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재평가한 서사시. 노동자인 석이와 순이의 사랑, 계엄군들과 맞서 싸우던 시민군과 석이의 죽음, 사랑하는 석이의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순이의 모습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마지막 부분에선 순이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묘사함으로써 광주의 새로운 탄생을 암시하고 있다.

동광출판사 / A5변형 / 142면 / 2500원

순례자의 잠

金東姬 지음

8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門에서」와 「흙밭에서」의 연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랑 · 믿음 · 생명 · 죽음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꽃 · 나무 · 풀 · 비 등의 구체적인 사물로 대치하여 노래하고 있다.

문학세계사 / A5변형 / 110면 / 2000원

초록반 아이들 1

김태영 지음

김영사 / A5신 / 268면 / 3000원

유치원 원장으로 4~5세 아동들을 교육해온 저자가 교육현장에서 겪은 갖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모아 펴낸 책.

번데기·세세미·짜까사리·카멜레온·땅콩·호박벌·오소리 등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일곱명의 초록반 친구들과 언제나 다섯살박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까치 선생님과 사이에서 벌어진 240여편의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다.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마음의 바탕을 심어주려는 저자와 꽃보다 환하고 생기넘치는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이야기가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자못 흥미롭다.

북치는 소년

이상배 지음

동화문학사 / A5신 / 202면 / 2500원

용이네는 대대로 북을 만들어오는 북장사 집안이다. 칠푼의 북장이 집이라면 백제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용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든 북이랴아 가족이 좋고, '둥둥둥'소리가 좋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사비성으로 신라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북을 메고 군대로 나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는다. 용이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북을 울리기 위해 할아버지로부터 북치기를 배운던 중,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표제작인 「북치는 소년」을 비롯해 「눈물꽃」「마음이 빛은 얼굴」등 창작동화 13편을 수록했다.

국어만화문법

서대원 지음

대교문화 / A5신 / 176면 / 3000원

사회생활에 있어 맨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언어습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

문법이라고 하면 우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국어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했다. 총론·문장론·품사론·소리에 관한 법칙으로 내용을 나누어, 표준말과 문법개념에서부터 발음법칙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별책부록으로 엮어,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펼쳐볼 수 있도록 했다.

벤은 안나를 좋아해

페터 헤르트링 지음 / 신경심 옮김

바른사 / A5신 / 144면 / 2500원

말썹꾸러기 4학년 남학생 벤의 반에 안나 미첼크라는 소녀가 전학온다. 커다랗고 슬픈 갈색 눈을 가진 안나를 못생겼다고 놀려대던 벤은, 어느새 안나를 좋아하게 된다. 게으름뱅이 벤은 이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학교에 가면 안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 어느날 학교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안나의 뒤를 밟던 벤은, 안나가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인 크라이바 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사랑을 통해 성장해가는 소년소녀의 이야기로, 서독의 소설가이며 아동문학가인 페터 헤르트링의 작품이다.



꼬마친구 짐 크노프

미카엘 엔데 지음 / 편집부 엮음

글수레 / A5신 / 240면 / 2500원

임금님과 신하 두명, 그리고 기관사와 기관차가 살고 있는 꼬마나라 푸른나라에 검둥이 갓난아기가 든 소포가 배달된다. 그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짐 크노프다. 자꾸 커감에 따라 더 이상 푸른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크노프는, 힘이 센 기관사 루카스와 함께 똥똥보 기관차 엠마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여러 날을 항해한 끝에 꿈나라에 도착한 크노프 일행은 이 나라 황제의 딸인 리시공주가 용의 도시로 납치되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용감무쌍한 꼬마친구 짐 크노프가 수많은 역경을 물리치고 마침내 공주를 구해내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작품. 「모모」의 작가 엔데의 처녀작이다.

재미있고 유익한 사서삼경

편집부 엮음

남광 / A5신 / 256면 / 2500원

「논어」「맹자」「대학」「중용」「시경」「서경」「역경」 등 7가지 책을 가리키는 사서삼경은 예부터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읽혀왔던 고전이다.

유교의 근간을 이루면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서삼경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삼경에서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뽑아 만화로 엮었다. 「역능과 회기」「은혜를 갚은 재미」「요임금과 순임금」 등 28편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고, 한문원문과 한글풀이도 곁들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했다.

4학년 3반 청개구리들(전편·후편)

최승환 지음

현암사 / A5신 / 각200면 내외 / 각 2500원

3학년 때 각 반의 청개구리들로 소문났던 친구들이 학기 초 공교롭게도 4학년 3반 교실에 모두 모이게 된다. 엄마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닌 여자 선생님과 개성이 강한 별명들을 지닌 청개구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짐하지만 그것도 잠시. 반장선거에 떨어진 장맹자가 반장에게 도전하면서 4학년 3반에는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끊일 날이 없다. 더구나 반장과와 부반장으로 편을 갈라 서로 싸우고 헐뜯는 소란이 벌어진다. 합창대회로 잠시 평화가 찾아드나 했으나 또 다시 패갈음 싸움은 시작되고, 선생님도 청개구리들을 잠재울 명피를 생각해낸다. 전편 「짜꿍 합창」, 후편 「강 건너 불 구경」.

참깨밭

김성규 지음

삼익문화 / A5신 / 102면 / 2000원

경북 군위군 부계중학교 교사이며 아동문학가인 김성규씨의 첫 동시집. 고향의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린 60여편의 동시들을 수록했다.

“밥맛 없을 때 / 참기름에 / 밥 비벼 줘라” / 고소한 냄새 / 시골할머니 마음 짠 참기름. / 엄마도 아끼는 한 방울.

“나물 무칠 때 / 깨소금 / 듬뿍 넣어 줘라.” / 짭조름하고 / 고소한 / 깨소금. / 할머니 사랑 담긴 한 손길.

올해도 / 나뉘 주신다. / 깨 한 되와 / 할머니 / 참음. 「참깨」